

## 11. 구지편(九地篇)

여기서는 땅이 전쟁에 미치는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말하고 있다. 손자는 전쟁을 하는 땅에는 근본적으로 아홉 가지(산지, 경지, 쟁지, 교지, 구지, 증지, 비지, 위지, 사지)가 있다며 싸움터가 될 지형의 성격에 따라서 작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孫子曰 用兵之法에 有散地하고 有輕地하고 有爭地하고  
손자왈 용병지법 유산지 유경지 유쟁지

손자가 말하기를, 용병법에는 산지(散地)가 있고, 경지(輕地)가 있고, 쟁지(爭地)가 있고

孫子曰 用兵之法에 有散地하고 有輕地하고 有爭地하고

有交地하고 有衢地하고 有重地하며 有圯地하고 有圍地하고 有死地하니  
유교지 유구지 유중지 유비지 유위지 유사지

교지(交地)가 있고, 구지(衢地)가 있고, 중지(重地)가 있고, 비지(圯地)가 있고, 위지(圍地)가 있고, 사지(死地)가 있다.

有交地하고 有衢地하고 有重地하며 有圯地하고 有圍地하고 有死地하니

諸侯 自戰其地者 爲散之오 入人之地 而不深者 爲輕地오  
제후 자전기지사 위산지 입인지지 이불심자 위경지

제후들이 자기 땅에서 싸우면 산지(散之)라 하며, 적국에 들어가되 그리 깊지 않은 곳을 경지(輕地)라 한다.

諸侯 自戰其地者 爲散之오 入人之地 而不深者 爲輕地오

我得亦利 彼得亦利者 爲爭地오 我可以往 彼可以來者 爲交地오  
아득역리 피득역리자 위쟁지 아가이왕 피가이래자 위교지

내가 얻어도 유리하고, 적이 얻어도 유리한 곳을 쟁지(爭地)라 하고, 나도 갈 수 있고 적도 올 수 있는 곳을 교지(交地)라 한다.

我得亦利 彼得亦利者 爲爭地오 我可以往 彼可以來者 爲交地오

諸侯之地三屬에 先至而得天下之衆者 爲衢地오  
제후지삼속 선지이득천하지중자 위구지

3개의 제후국과 국경이 접하여 먼저 가서 점령하면 천하의 백성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을 구지(衢地)라 한다.

諸侯之地三屬에 先至而得天下之衆者 爲衢地오

入人之地深하여 背城邑多者 爲重地오  
입인지지심 배성읍다자 위중지

적국 깊이 들어가 배후에 적의 성읍을 등진 곳이 많이 있는 데를 중지(重地)라 한다.

入人之地深하여 背城邑多者 爲重地오

山林 險阻 沮澤 凡 難行之道者 爲圯地오

산림 험조 저택 범 난행지도자 위비지

산림, 험한 지형, 소택지 등 지나가기 어려운 곳을 비지(圯地)라 한다.

山林 險阻 沮澤 凡 難行之道者 爲圯地오

所由入者 隘하고 所從歸者 迂하여 彼寡로 可以擊吾之衆者 爲圍地오

소유입자 애 소종귀자 우 피과 가이격오지중자 위위지

들어오는 곳이 좁고 돌아가는 곳이 구불구불하여 적의 소병력으로 나의 많은 병력을 공격할 수 있는 곳을 위지(圍地)라 한다.

所由入者 隘하고 所從歸者 迂하여 彼寡로 可以擊吾之衆者 爲圍地오

疾戰則存하고 不疾戰則亡者 爲死地라  
질전즉존      부질전즉망자 위사지

신속하게 싸우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 곳을 사지(死地)라 한다.

疾戰則存하고 不疾戰則亡者 爲死地라

是故로 散地則無戰하고 輕地則無止하고 爭地則無攻하고  
시고    산지즉무전      경지즉무지      쟁지즉무공

이러한 까닭에 산지(散地)에서는 싸우지 말고, 경지에서는 머물지 말고, 쟁지(爭地)는 공격하지 말고

是故로 散地則無戰하고 輕地則無止하고 爭地則無攻하고

交地則無絶하고 衢地則合交하고 重地則掠하고  
교지즉무절      구지즉합교      중지즉략

교지(交地)에서는 통행이 끊이지 않도록 하고, 구지(衢地)에서는 외교에 힘쓰고, 중지(重地)에서는 약탈(현지 조달)에 힘쓰고,

交地則無絶하고 衢地則合交하고 重地則掠하고

圯地則行하고 圍地則謀하고 死地則戰하니  
비지즉행      위지즉모      사지즉전

비지(圯地)에서는 (빨리) 지나가고, 위지(圍地)에서는 계책을 도모하고, 사지(死地)에서는 싸워야 하는 것이다.

圯地則行하고 圍地則謀하고 死地則戰하니

所謂古之善用兵者는 能使敵人으로 前後不相及하고 衆寡不相恃하고  
소위 고지선용병자 능사적인 전후불상급 중과불상시

옛날 용병을 잘하는 사람은 적으로 하여금 앞·뒤가 서로 연계되지 못하게 하고, 대부대와 소부대가 서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所謂古之善用兵者는 能使敵人으로 前後不相及하고 衆寡不相恃하고

貴賤不相救하고 上下不相扶하고 卒離而不集하고 兵合而不齊니  
귀천불상구 상하불상부 졸리이부집 병합이부제

장교와 사병이 서로 구해주지 못하게 하고, 상하가 서로 돕지 못하게 하고, 사졸이 흩어져 모이지 못하게 하고, 집결되어도 정연하지 못하게 하였다.

貴賤不相救하고 上下不相扶하고 卒離而不集하고 兵合而不齊니

合於利而動하고 不合於利而止니라  
합어리이동 불합어리이지

(이렇게 하여 상황이) 유리하면 움직이고, 불리하면 정지하는 것이다.

合於利而動하고 不合於利而止니라

敢問 敵이 衆整而將來면 待之若何오 曰 先奪其所愛則聽矣리라  
감문 적 중정이장래 대지약하 왈 선탈기소애즉청의

“적이 우세하고 정연한 태세로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선 적이 아끼는 것을 빼앗으면 (나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고 대답할 것이다.

敢問 敵이 衆整而將來면 待之若何오 曰 先奪其所愛則聽矣리라

兵之情이 主速이니 乘人之不及하고 由不虞之道하여 攻其所不戒也니라  
병 지정 주속 승인지불급 유불우지도 공기소불계야

군사 작전 상의 으뜸은 신속함이니, 적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생각하지도 않는 길을 경유하여 경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해야 한다.

兵之情이 主速이니 乘人之不及하고 由不虞之道하여 攻其所不戒也니라

凡 爲客之道는 深入則專하여 主人不克이니 掠於饒野하여 三軍足食하고  
범 위객지도 심입즉전 주인불극 략어효야 삼군족식

무릇 (남의 나라에서 싸우는) 작전의 요령은, 깊이 들어가면 굳게 뭉쳐 적이 대항치 못하게 되는 것이니, 풍요한 농지에서 식량을 약탈하여  
전군을 충분히 먹이고

凡 爲客之道는 深入則專하여 主人不克이니 掠於饒野하여 三軍足食하고

謹養而勿勞하여 并氣積力하고 運兵計謀하되 爲不可測이니라  
근양이물로 병기적력 운병계모 위불가측

힘을 비축하고 피로하지 않게 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힘을 축적하고, 군대를 운용하며 책략을 세우되 예측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謹養而勿勞하여 并氣積力하고 運兵計謀하되 爲不可測이니라

投之無所往이면 死且不北라 死焉不得士人盡力이리오  
투지무소왕 사차불배 사언부득사인진력

갈 곳이 없는 곳에 (병사들을) 던져 놓으면 죽도록 싸우되 도망가지는 않을 것이다. 죽게 되는데 어찌 병(兵)들이 힘을 다하지 않겠는가.

投之無所往이면 死且不北라 死焉不得士人盡力이리오

兵士甚陷則不懼하고 無所往則固하고 入深則拘하고 不得已則鬪라  
병사심함즉불구 무소왕즉고 입심즉구 부득이즉투

병(兵)들은 극단적인 어려움에 빠지면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갈 곳이 없어지면 굳세지고, (적지에) 깊이 들어가면 투지가 생기고, 부득이해지면 싸우게 된다.

兵士甚陷則不懼하고 無所往則固하고 入深則拘하고 不得已則鬪라

是故로 其兵 不修而戒하며 不求而得하며 不約而親하며 不令而信하리니  
시고 기병 불수이계 불구이득 불약이친 불령이신

이렇게 되면 그 사졸들은 지도하지 않아도 경계하며, 구하지 않아도 얻으며, 언약하지 않아도 친해지며, 명령하지 않아도 믿을 것이니,

是故로 其兵 不修而戒하며 不求而得하며 不約而親하며 不令而信하리니

禁祥去疑면 至死도록 無所之니  
금상거의 지사 무소지

나쁜 징조를 금하고 의심스러움을 없애면 죽음에 이르러도 떠나감이 없을 것이다.

禁祥去疑면 至死도록 無所之니

吾士 無餘財는 非惡貨也오 無餘命이 非惡壽也라  
오사 무여재 비오화야 무여명 비오수야

나의 병(兵)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은 재화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오, 목숨을 아끼지 않음은 오래 살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다.

吾士 無餘財는 非惡貨也오 無餘命이 非惡壽也라

令發之日에 士卒坐者 涕霑襟하고 偃臥者 涕交頤하나니  
령발지일 사졸좌자 체점금 언와자 체교이

출동 명령이 내리는 날에 앉아 있는 병사들이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누워 있는 자들도 눈물로 턱을 적시게 되지만,

令發之日에 士卒坐者 涕霑襟하고 偃臥者 涕交頤하나니

投之無所往이면 則諸劇之勇也라

투지무소왕 즉제귀지용야

갈 곳이 없는 곳에 투입되면 전저나 조귀와 같은 용기를 발휘할 것이다.

投之無所往이면 則諸劇之勇也라

故로 善用兵者는 譬如率然하니 率然者는 常山之蛇也라  
고 善用兵자 비여솔연 솔연자 상산지사야

용병을 잘하는 자는 솔연과 같이 하는 것이니, 솔연이란 상산에 사는 뱀이다.

故로 善用兵者는 譬如率然하니 率然者는 常山之蛇也라

擊其首則尾至하고 擊其尾則首至하고 擊其中則首尾俱至니라  
격기수즉미지 격기미즉수지 격기중즉수미구지

그 머리를 치면 꼬리가 달려들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달려들고, 그 중간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다 같이 달려든다.

擊其首則尾至하고 擊其尾則首至하고 擊其中則首尾俱至니라

敢問 兵可使如率然乎 아 曰 可 하니 夫 吳人與越人 이 相惡也 나  
감문 병가사여솔연호 왈 가 부 오인여월인 상오야

감히 '병(兵)들도 솔연과 같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하겠다. 무릇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사이지만,

敢問 兵可使如率然乎 아 曰 可 하니 夫 吳人與越人 이 相惡也 나

當其同舟而濟에 遇風이면 其相救也 如左右手 하리니  
당기동주이제 우풍 기상구야 여좌우수

같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면 마치 좌·우측 손과 같이 서로 돕게 된다.

當其同舟而濟에 遇風이면 其相救也 如左右手 하리니

是故로 方馬埋輪을 未足恃也라

시고 방마매륜 미족시야

그러므로 말을 묶고 바퀴를 땅에 묻어도 이것보다 더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是故로 方馬埋輪을 未足恃也라

齊勇若一이 政之道也오 剛柔皆得이 地之理也니라

제용약일 정지도야 강유개득 지지리야

삼가하는 사람과 응감한 자를 하나처럼 하는 것이 통솔의 도이며, 굳센 자와 부드러운 자를 모두 다 활용하는 것이 지리의 이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齊勇若一이 政之道也오 剛柔皆得이 地之理也니라

故로 善用兵者 携手若使一人은 不得已也라  
고 선용병자 휴수약사일인 부득이야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자가 병(兵)들을 손을 묶어 마치 한사람을 부리듯 하는 것은 (그들을) 부득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故로 善用兵者 携手若使一人은 不得已也라

將軍之事는 靜以幽 正以治하나니 能愚士卒之耳目하여 使之無知하고  
장군지사 정이유 정이치 능우사졸지이묵 사지무지

장수의 일은 고요해서 어둠과 같고, 올바르게 해서 다스리는 것이니, 병(兵)들의 눈과 귀를 어리석게 만들어 아는 것이 없게 하고

將軍之事는 靜以幽 正以治하나니 能愚士卒之耳目하여 使之無知하고

易其事 革其謀 하되 使人無識 하고 易其居 迂其途 하되 使人不得慮 하며  
역기사 혁기모 사인무식 역기거 우기도 사인부득려

일을 바꾸고 계획을 고치되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주둔지를 바꾸고 길을 돌아가되 남들이 헤아리지 못하게 하며

易其事 革其謀 하되 使人無識 하고 易其居 迂其途 하되 使人不得慮 하며

帥與之期 하되 如登高而去其梯 하며 帥與之深入諸侯之地 而發其機 하고  
수여지기 여登高이거기제 수여지심입제후지지 이발기기

(병력을) 이끌어서 결전을 할때는 마치 높은 곳에 오르게 하고 사다리를 치워버리듯 하며, 이끌고 적국 깊숙이 들어가 (싸울 때에는)  
방아쇠를 당기듯 하고,

帥與之期 하되 如登高而去其梯 하며 帥與之深入諸侯之地 而發其機 하고

若驅群羊하여 驅而往하고 驅而來하되 莫知所之니

약구군양 구이왕 구이래 막지소지

마치 양떼를 몰듯이 몰아가고 몰아와서, 병력들이 (적군 깊숙이) 가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하나니

若驅群羊하여 驅而往하고 驅而來하되 莫知所之니

聚三軍之衆하여 投之於險은 此 將軍之事也라

취삼군지중 투지어험 차 장군지사야

삼군의 병력을 집결시켜 위험한 곳에 투입하는 이것이 장수가 해야 할 일이라.

聚三軍之衆하여 投之於險은 此 將軍之事也라

九地之變과 屈伸之利와 人情之理를 不可不察也니라  
구지지면 굴신지리 인정지리 불가불찰야

구지의 변화와 신축성(융통성)의 이로움과 심리적 변화의 이치 등은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九地之變과 屈伸之利와 人情之理를 不可不察也니라

凡 爲客之道 深則專하고 淺則散이니 去國越境而師者는 絶地也오  
범 위객지도 심즉전 천즉산 거국월경이사자 절지야

무릇 남의 나라에 참입한 작전에서 깊이 들어가면 단결되고 얕게 들어가면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니,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어 작전하는 것은 절지(絶地)요

凡 爲客之道 深則專하고 淺則散이니 去國越境而師者는 絶地也오

四達者는 衢地也오 入深者는 重地也오 入淺者는 輕地也오  
사달자 구지야 입심자 중지야 입천자 경지야

사방이 트인 곳은 구지(衢地)요, 적국 깊이 들어간 곳은 중지(重地)요, 얇게 들어간 곳은 경지(輕地)요

四達者는 衢地也오 入深者는 重地也오 入淺者는 輕地也오

背固前隘者는 圍地也오 無所往者는 死地也라  
배고전애자 위지야 무소왕자 사지야

험한 곳을 등지고 앞길이 좁은 것은 위지(圍地)요, 갈 곳이 없는 곳은 사지(死地)라 한다.

背固前隘者는 圍地也오 無所往者는 死地也라

是故로 散地어든 吾將一其志하고 輕地어든 吾將使之屬하고  
시고 산지 오장일기지 경지 오장사지속

이런 까닭에 산지(散地)에서는 그 마음을 하나로 단결시켜야 하고, 경지(輕地)에서는 각 부대간의 결속을 긴밀히 하고

是故로 散地어든 吾將一其志하고 輕地어든 吾將使之屬하고

爭地어든 吾將趨其後하고 交地어든 吾將謹其守하고  
쟁지 오장추기후 교지 오장근기수

쟁지(爭地)에서는 달려나가(적의) 배후를 치고, 교지(交地)에서는 수비를 신중히 해야 하고

爭地어든 吾將趨其後하고 交地어든 吾將謹其守하고

衢地어든 吾將固其結하고 重地어든 吾將繼其食하고  
구지 오장고기결 중지 오장계기식

구지(衢地)에서는 외교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지(重地)에서는 식량 조달을 지속시켜야 하고

衢地어든 吾將固其結하고 重地어든 吾將繼其食하고

圯地어든 吾將進其途하고 圍地어든 吾將塞其闕하고  
이지 오장진기도 위지 오장색기궤

이지(圯地)에서는 신속히 통과해야 하고, 위지(圍地)에서는 적이 터준 탈출로를 봉쇄해야 하고

圯地어든 吾將進其途하고 圍地어든 吾將塞其闕하고

死地어든 吾將示之以不活이니라

사지 오장시지이불활

사지(死地)에서는 달리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도록 해야)한다.

死地어든 吾將示之以不活이니라

故로 兵之情이 圍則禦하고 不得已則鬪하고 逼則從이라

고 병지정 위즉어 부득이즉투 핍즉종

병(兵)들의 마음은 (적에게) 포위되면 스스로 방어하고, 부득이 하면 싸우고, 위촉되면 (장수를) 따른다.

故로 兵之情이 圍則禦하고 不得已則鬪하고 逼則從이라

是故로 不知諸侯之謀者는 不能豫交하고  
시고 부지 제 후지 모자 불능 예교

이런 고로 인접 제후국의 계략을 모르면 미리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고

是故로 不知諸侯之謀者는 不能豫交하고

不知山林險阻沮澤之形者는 不能行軍하고  
부지 산림 험조저택지형자 불능 행군

산림, 험난한 지형, 소택지 등의 지형을 알지 못하면 행군할 수 없고

不知山林險阻沮澤之形者는 不能行軍하고

不用鄉導者는 不能得地利하나니  
불용향도자 불능득지리

그 고장 안내자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형의 이점을 얻을 수 없다.

不用鄉導者는 不能得地利하나니

四五者에 一不知면 非霸王之兵也라  
사오자 일부지 비패왕지병야

구지(4+5)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천하의 패권을 다룰만한 군대가 못된다.

四五者에 一不知면 非霸王之兵也라

夫 霸王之兵은 伐大國則其衆不得聚하고 威可於敵則其交不得습이니  
부 패왕지병 벌대국즉기중부득취 위가어적즉기교부득합

무릇 패왕의 용병은, 대국을 정벌하게 되면 그 대국이 미처 군대를 소집하지 못하게 되고, 적국에 위세를 가하면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갖지 못하게 된다.

夫 霸王之兵은 伐大國則其衆不得聚하고 威可於敵則其交不得습이니

是故로 不爭天下之交 不養天下之權하고 信己之私威하여 加於敵이오  
시고 부쟁천하지교 불양천하지권 신기지사위 가어적

이런 까닭에 천하의 외교문제를 다루지 않고, 천하의 권력을 키우지도 않고 자신의 위세를 펼쳐서 적에게 작용케 한다.

是故로 不爭天下之交 不養天下之權하고 信己之私威하여 加於敵이오

故로 其城可拔이오 其國可隳라

고 기성가탈 기국가휴

그러므로 적의 성도 함락할 수 있고 적국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故로 其城可拔이오 其國可隳라

施無法之賞하고 縣無政之令하며 犯三軍之衆하되 若使一人하며

시 무법지상 현 무정치령 범삼군지중 약사일인

법도와 무관하게 후한 상도 주고, 특별한 정치 훈령을 내걸기도 하며, 삼군의 장병을 다스림이 마치 한사람 부리듯 하며

施無法之賞하고 縣無政之令하며 犯三軍之衆하되 若使一人하며

犯之以事하고 勿告以言하며 犯之以利하고 勿告以害니라  
범지이사 물고이언 범지이리 물고이해

일로써 다스리지 말로써 다스리지 않으며, 이익으로써 다스리지 처벌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다.

犯之以事하고 勿告以言하며 犯之以利하고 勿告以害니라

投之亡地 然後에 存하고 陷之死地 然後에 生이니 夫衆陷於害 然後에 能爲勝敗라  
투지망지 연후 존 함지사지 연후 생 부중함어해 연후 능위승패

죽을 위험에 던져진 후에야 살아남을 수 있고, 사지에 빠진 후에야 살아 날수 있게 되는 것이니, 대체로 병(兵)들이 위험에 빠진 후에야 승패를 결할 수 있는 것이다.

投之亡地 然後에 存하고 陷之死地 然後에 生이니 夫衆陷於害 然後에 能爲勝敗라

故로 爲兵之事는 在於順詳敵之意하고 并力一向하여 千里殺將이니  
고 위병지사 재어순상적지의 병력일향 천리살장

그러므로 용병은 적의 의도에 따라 순순히 응해주다가, 힘을 한 방향으로 집중하여 천리 밖의 적장까지 죽이는 것이니

故로 爲兵之事는 在於順詳敵之意하고 并力一向하여 千里殺將이니

是謂 巧能成事라

시위 교능성사

이를 일러 교묘히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是謂 巧能成事라

是故로 政舉之日에 夷關折符하여 無通其使하고  
시고 정거지일 이관절부 무통기사

이런 까닭에 전쟁이 결정된 날에는 국경 관문의 통행증을 폐지하여 적의 사신이나 첩자 통행이 없도록 하고

是故로 政舉之日에 夷關折符하여 無通其使하고

勵於廟堂之上하여 以誅其事니라.

려어묘당지상 이주기사

조정회의에서 전의를 독려하여 전쟁의 일을 엄히 단행한다.

勵於廟堂之上하여 以誅其事니라.

敵人開闔에 必亟入之하여 先其所愛 微與之期하여 踐墨隨敵 以決戰事라  
적인 개합 필극입지 선기소애 미여지기 천묵수적 이결전사

적이 열고 닫음에 따라 재빠르게 들어가서, 처음에는 적이 좋아하는 바를 조금씩 주며 지나다가, 병법과 적 상황에 따라 싸움을 결행한다.

敵人開闔에 必亟入之하여 先其所愛 微與之期하여 踐墨隨敵 以決戰事라

是故로 始如處女라가 敵人開戶어든 後如脫兔면 敵不及拒니라  
시고 시여처녀 적인개호 후여탈토 적불급거

이런 까닭에 처음에는 처녀처럼 지나다가 적이 문을 열거든, 도망가는 토끼처럼 신속히 행하면 적이 미처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是故로 始如處女라가 敵人開戶어든 後如脫兔면 敵不及拒니라